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하자” 선회

정부 비용 추계 제출 전제조건 제시...한국당 반대입장 여전 여야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논란 사무실 압수수색 놓고 격돌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문제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재시동을 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는 다소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비용 추계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당도,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하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날 오전 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 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은 핵 폐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한국당을 일컬어) 평화의 방관자나 어찌니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부 사퇴를 압박하며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은 반면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난 번의 뽀니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기재위원이 피감기관을 고소한 상태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부적격한 사람이 국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의원총회 합동회의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실상 허가한 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의회에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광장화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4당 의원들 다음주 방미

내달 3~5일 ...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 알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알린다.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7일 “10월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해 미국 민주당·공화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방미 취지에 대해 “북한을 국제사회 구성원이자 미국의 우방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확실한 길이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론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설득하고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김중대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달라서 이번에는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평화외교단의 개성공단 방문도 추진 중이며, 정부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정 대표는 “이번 평양 방문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 개성공단 방문안을 제안했더니 ‘내일이라도 오시라’는 답을 받았지만, 통일부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심야 사용”...靑 “365일 일하는 조직”

주막 등 술집 사용 주장에 사례 제시 조목조목 반박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건 행정정보를 토대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033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심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한 뒤 취재진을 상대로 대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 4억1469만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사자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

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의원불패 깨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본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병준 “경제정책에 화력 집중”

한국당 의총 “홍준표는 평당원... 귀국 관심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당협위원장 교체에 관한 조지강화 특별위원회 가동과 관련, “공정성이 흐트러진다면 비대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특정 계파나 인맥을 겨냥한 것이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 “추석 이후 당의 화력을 어디에 집중할 계획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역시

경제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산업 정책 등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각종 혁신에 장애가 되는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그분의 현재 위치가 일종의 평당원이고 지도자 중의 한 사람 아니겠나”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 ~ 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임팩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